

기록보존소 자료를 통해 본 소비에트 시기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 최 파벨 페트로비치의 죽음과 스탈린 탄압의 비극*

이병조
카자흐 국립대

[목차]

- I. 머리말
- II. 해군군사학교 입학과 해군함대 생활
 - 1. 빨치산 활동과 해군군사학교 입학
 - 2.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의 탄생과 군복무 생활
- III. 스탈린 탄압과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의 죽음
 - 1. 기록보존소 자료 속에 나타난 최 파벨의 비극적인 죽음
 - 2. 명예회복을 위한 살아남은 자의 노력
- IV. 맺음말

I. 머리말

필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최 파벨 페트로비치(Цой Павел Петрович, 최 선학, 1900-38)의 생존가족들이 생산해 낸 다량의 가족사 회상수기(回想手記)¹ 1 차원 자료들을 중심으로, 최 파벨의 행적(빨치산활동과 해군 복무

* 본 논문은 앞서 필자에 의해 수행된 선행연구물(이병조, “생존자의 회상을 통해서 본 스탈린 탄압의 비극: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 최 파벨 페트로비치(최선학) 가족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4 호 (2011))의 후속 연구물이다.

¹ 선행연구물에서 활용된 가족사 회상수기(약 350 쪽 분량)는 대부분 러시아어 필기체로 수기 작성된 것이다. 최 파벨 관련 가족사 회상수기 목록들: 최 포트르 세묘노비치(재형) 후손계보도, [Генеалогия потомков Цой П.С.], 1990년 12월 작성;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1), [Что помню и узнал об отце], 1990-94; Цой Ольга Петровна, [Моя жизнь], 1990.1.10, г.Москва;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2), [Кратко о себе и о нашей семье], 1990.6, г.Алма-Ата; Цой София Петровна, Цой Ольга Петровна, [Биография Цой Шен Хак-Павел Петровича], 1961.5;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 [Хронология жизни Цой Петра Семёновича-Зя Хена, 1860-1920], 1992.3;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 Цой Елизавета Петровна, [Краткая биография Цой Петра Семёновича-Зя Хена], 1990.2, Алма-Ата; 최 올라 페트로브나가 엘리자베타 야코블레브나에게 보낸 편지, 「Милая Елизавета Яковлевна!」.

상황)과 그의 가족 전체가 겪어야 했던 스탈린 탄압의 실상을 미시사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바 있다.² 필자가 최 파벨과 그의 가족구성원들(본인 포함 11 형제와 매제, 자형들)³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던 것은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최 파벨의 죽음 또한 1937년을 전후 한 스탈린 정권의 지식인 탄압의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가족구성원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역시 당시 스탈린 정권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의 불법적이고 잔악한 일면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 사례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선행연구 과정에서 필자는 또한 본 후속연구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연구물들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1937년 전후 한 시기 스탈린 정권에 의한 탄압희생자들과 기타 주제(항일의병, 빨치산, 문화, 예술, 언론)와 관련된 인물 중심의 연구물들이 해당된다.⁴ 물론 살펴본 연구물들 외에도 최 파벨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물들은 더 있을 수 있다.

² 이병조(2011), “생존자의 회상을 통해서 본 스탈린 탄압의 비극: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 최 파벨 페트로비치(최선학) 가족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 24 호, 119-173 쪽.

³ 최 파벨 페트로비치(2남)의 부모형제들: 최 표트르 세묘노비치(부, 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최재형, 1860년생),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모, Цой Елена Петровна, 1880년생), 최 표트르 페트로비치(1남, Цой Пётр Петрович, 1883년생), 최 베라 페트로브나(1녀, Цой Вера Петровна, 1885년생), 최 나제쾨다 페트로브나(2녀, Цой Надежда Петровна, 1888년생), 최 류보프 페트로브나(3녀, Цой Любовь Петровна, 1898년생), 최 소피야 페트로브나(4녀, Цой София Петровна, 1902년생), 최 올가 페트로브나(5녀, Цой Ольга Петровна, 1905년생), 최 발렌틴 페트로비치(3남,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 1908년생), 최 류드밀라 페트로브나(6녀, Цой Людмила Петровна, 1910년생), 최 엘리자베타 페트로브나(7녀, Цой Елизавета Петровна, 1912년생), 최 비켄티 페트로비치(4남, Цой Викентий Петрович, 1914년생).

⁴ 스탈린 정권의 탄압희생자들에 관해 인물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 저작물들은 적다. 국외에서는 В.А. Хан-Фимина(2001), *Корей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 Хан Мен Ше(Se) и Его Семья*, Москва 등이 있다. 그 외의 기타 주제로 인물중심으로 기술된 국내외 저작물로는, 이정은(1996), “최재형(崔才亨)의 생애(生涯)와 독립운동(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0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정계우(1997), “연해주(沿海州) 이범윤(李範允) 의병(義兵),”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박환(1998), “崔才亨과 재러한인사회: 1905년 이전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55, 56호, 한국사학회; 동 저자(2008),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 최재형』, 역사공간; 반병률(2007), “4월참변 당시 희생된 한인애국지사들-최재형, 김이직, 엄주필, 황경섭,” 『역사문화연구』, 26집, 역사문화연구소; 동 저자(2009), “안중근(安重根)과 최재형(崔在亨),” 『역사문화연구』, 제 33집, 역사문화연구소; 박민영(2008), “국치전후 이상설(李相高)의 연해주지역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필자가 앞서 가족사 수기를 중심으로 수행했던 선행연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최 파벨은 극동 항일운동의 대부이자 1920년 4월참변⁵으로 희생된 최재형(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1860-1920)의 차남이다. 그는 내전기(гражданская война, 1918-22) 빨치산 활동에 이어 1926년 레닌그라드 프룬제(Фрунзе) 해군군사학교 졸업 후 소비에트 군대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가 되어 소련전역의 바다를 누비며 활동했다. 하지만 내전기 전투에서 큰형이 전사하고, 1920년에는 아버지 최재형이 비명횡사하며 그는 계속되는 가족의 처참한 불운을 겪어야 했다. 1937년을 전후하여 최 파벨의 10명의 형제자매들과 매제, 자형들이 스탈린 정권의 탄압으로 대부분 죽거나 일부만이 겨우 목숨을 건졌고, 마지막에는 최 파벨 또한 해군장교 신분이면서도 스탈린 정권의 무고한 탄압으로 1938년 10월 17일에 카자흐스탄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 결과적으로 1917년 10월혁명이 후 러시아 내전에 한인빨치산 투쟁에 참여하며 아버지 최재형의 항일 정신을 계승해 나갔던 최 파벨은 스탈린 탄압에 의한 전형적인 한인 지식인 희생자의 한 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그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들에게 가해진 혹독했던 탄압은 스탈린 탄압의 광기어린 불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필자의 선행연구에서는 최 파벨 한 개인보다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가족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활용된 자료들은 최 파벨 직계가족들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해 작성된 가족사 회상수기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런 만큼 필자의 선행연구물에서는 최 파벨의 행적을 둘러싼 시기와 죽음의 원인, 주변 상황 등을 밝혀내는데 있어서는 기억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의 담보문제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쉽게도 필자의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가족사 수기 외의 자료가 활용된, 최 파벨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와 연구물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후속연구에서 필자는 최 파벨의 가족사 회상수기에 객관성과 공식성을 더 담보해 줄 수 있는 자료들으로써, 당시 소련 당국에 의해 생

오영섭(2008), “이위종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Б.Д. Пак(1999), Возмездие на Харбинском вокзале, М.-И.; В.В. Цой(2000), ЧХВЕ ДЖЭХЁГ-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Москва; он же(2001), ЧХВЕ ДЖЭХЁГ-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дополненное), Алматы; Ю.В. Ванин(под ред.), Б.Д. Пак(сост.)(2002), Ли Бомджин, Москва; Евгений Цой(сост.)(2003), Мин Гын Хо и его потомки в Казахстане, Алматы; Ю.В. Ванин(под ред.), Б.Д. Пак(сост.)(2006), Ким Пен Хва и колхоз <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Москва 등이 있다.

⁵ 4월참변은 일제가 1920년 4월 4일-5일 새벽에 걸쳐 블라디보스톡, 니콜스크-우수리스크, 하바로프스크, 스파스크예, 포시에트, 수찬 등지에서 저지른 비인간적인 학살만행사건이다.

산된 최 파벨 관련 1 차원자료들을 중심자료로 활용했다. 언급된 자료들은 러시아국립해군기록보존소(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에 소장되어 있는 노농붉은군대⁶ 해군당국(13 건 30 쪽 분량)과 기타 관련당국(5 건 13 쪽 분량)에서 생산된 1 차원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최 파벨 관련 연구에서 활용된 바가 없는 사료적 가치고 높은 자료들이다. 필자는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 파벨의 행적과 죽음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관계와 정황들을 또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 및 조명해 보았다. 해당 자료들은 무엇보다 가족사 회상수기에 실린 정보들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당 자료에서 특히 최 파벨의 해군 복무상황 및 죽음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정보들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해당 후속연구 또한 선행연구에서처럼 근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즉 최 파벨의 ‘빨치산투쟁-스탈린 탄압-숙청’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삶을 통해 20세기 초 극동 지식인 한인의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탈린 정권의 전형적인 소수민족 탄압정책의 잔악성과 불법성을 밝혀보는 데에도 또 하나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후속연구에서는 최 파벨이라는 한 개인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미활용 자료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시각에서 최 파벨의 행적과 죽음을 둘러싼 새로운 사실관계들을 재조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해군 장교였던 최 파벨의 경우처럼, 1937년 강제이주 이전 시기의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생산된 자세한 한인 군복무 기록은 결코 흔하지도 않고, 또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를 고려했을 때,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생산된 최 파벨 관련 기록보존소 자료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들(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제시 측면)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록보존소의 원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본 후속연구는 필자의 선행연구에 이어 스탈린의 한인 지식인 탄압의 실상을 미시사적인 시각을 넘어 위로부터라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해군군사학교 입학과 해군함대 생활

1. 빨치산 활동과 해군군사학교 입학

⁶ 노농붉은군대(РККА, 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ая Красная Армия, 1918-46): 약칭 ‘붉은군대’. 1946년 이후에 ‘소비에트 군대’(Советская Армия)로 개칭되었다.

최 파벨은 일찍이 유년.학창 시절부터 항일운동가였던 아버지 최재형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그의 항일의식은 이미 블라디보스톡 상업학교(Владивостокское городское коммерческое училище) 시절(1914-18)부터



마음 속에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특히 상업학교 내에서의 콤문(коммуна, 공동체) 활동은 그의 항일 의식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작은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1918년 가을, 이때는 백위파에 의해 극동지역이 점령되어 있던 시기였는데, 최 파벨은 학생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되었다. 이어 그는 1919년 3월까지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 있는

레알노예 학교(Реальное училище)를 다녔는데, 이번에는 3.1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톡 상업학교와 레알노예 학교를 다니는 동안 최 파벨은 동시에 연해주 한인학생동맹에서 일을 했다.⁷ 이뿐만이 아니었다. 1918년 여름부터 그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역 철도교통 청년학생 및 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신문 『골로스 우차쉬흐샤』(Голос учащихся, 학생의 목소리)를 ‘야노프 미크’(Янофы Мик)라는 편집명으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또한 신문 『크라스노예 즈나마』(Красное Знамя, 붉은기)의 비밀기자로 활동하기도 했다.⁸ 이러한 과정들은 최 파벨이 미래의 한인 빨치산이자 장교로서 거듭나게 하는데 큰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1919년 봄, 최 파벨은 이제 학생이 아닌 완전한 한인 빨치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19년 5-8월 시기에 최 파벨은 대한국민의회(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вет)의 배정에 따라 중국 지역에 있던 분산된 한인 빨치



산 부대들로 구성된 하얼빈에 있던 한인 민족대대(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батальон, 한인대대)에서 빨치산 부대의 재조직과 관련해서 활동을 했다. 그 해 8월, 최 파벨은 백위파(белогвардеец)에 의해 체포되었다. 하지만 5명의 동료들과 함께 탈출을 했고, 이후 연해주 폴타프카 지구(Полтавский район)로 도망을

⁷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8. 「1935년 3월 5일자 작성된 붉은기발틱함대 주력함 <마라트호> 포병분과장 최선학의 자기소개서」.

⁸ 최 올가 페트로브나가 엘리자베타 야코블레브나에게 보낸 편지, 「Миляя Елизавета Яковлевна!」 (친애하는 엘리자베타 야코블레브나에게), 3쪽; Цой Ольга Петровна, указ. соч., с.11.

와 그곳에서 홍범도 관할의 한인 빨치산 부대에 입대했다. 그 부대에 있는 동안 최 파벨은 3 차례 걸쳐서 백위파나 일본군 부대들에 대항한 전투에 참여를 했다. 1920 년 3 월, 니콜스크-우수리스크에 레닌의 붉은군대와 빨치산 부대들이 입성했다.⁹ 당시 최 파벨은 콤소몰(전연방레닌공산주의 청년동맹, Всесоюзный Ленински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Союз Молодёжи) 조직을 결성하는데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는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지구의 군지휘부(빨치산 혁명본부, Революционный штаб)에 의해 발간되는 신문 『나찰로』(начало, 시작)의 서기(세크리터리)로도 활동을 했다.¹⁰ 1920 년 4 월 4 일에서 5 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블라디보스톡과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일대에서 일본군의 동시다발적인 공격과 학살만행인 이른바 ‘4 월 참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최 파벨의 부친인 최재형과 그 일행이 체포되어 처형을 당했다. 한편 파벨이 속해있던 33 보병연대 혼성중대는 일본군에 밀려 폴타프카역으로 후퇴를 했고, 그곳에서 다른 빨치산 부대들과 함께 제 1 아무르독립여단(I Амурская отдельная бригада)에 속해 있던 보스코보이니코프(Воскобойников)의 지휘를 받는 하나의 부대로 통합되었다. 최 파벨은 이 부대의 첩보분과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 해 5 월, 최 파벨의 부대는 다시 1 개의 제 1 극동독립대대(I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тдельный батальон)와 기병연대로 재조직되었고, 그는 제 1 극동독립대대의 부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최 파벨의 부대는 폴타프카 지구에서 아누치노 지구(Анучинский район)¹¹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다시 제 1 아무르독립여단(бригада)으로 편성되었다. 그 해 8 월에 최 파벨은 코쿠쉬킨(Кокушкин) 휘하의 여단 군사위원회(Военный комитет)의 지시에 따라 중국과 연해주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동해 온 무리들로 구성된 한인 빨치산 부대의 조직에 착수했고, 12 월에는 이 한인 빨치산 부대로 넘어갔다.¹² 당시 최 파벨의 가족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끔찍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극적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최 파벨의 어머니는 최 파벨만큼은 평범한 길을 걷기를 갈망했었으나

⁹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8а. 「1935 년 3 월 5 일자 작성된 붉은기발틱함대 주력함 <마라트호> 포병분과장 최선학의 자기소개서」 ; Цой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1), указ. соч., с.26.

¹⁰ Там же, Л.8а; Там же, Л.11а. 「1937 년 4 월 10 일자 레닌그라드에서 작성한 최선학의 자기소개서」 .

¹¹ 아르세네프강 우안에 위치하고, 우수리스크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연해주 남부의 산악지대.

¹² Там же, Л.8а ; Там же, Л.11а. 1935 년과 1937 년에 작성된 2 건의 자기소개서에서 최 파벨은 자신의 소속 직책을 혼동해서 적고 있다(예, 제 1 극동독립대대와 기병연대 중 어디에서 부관으로 활동했는지 여부 문제 등).

아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¹³ 최 파벨은 점점 더 깊게 빨치산 투쟁의 길을 걸어 나갔다. 4 월참변 이후 백위파 및 일본군의 기세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고, 한인 빨치산 부대는 더 조심스럽게 행보를 이어 나갔다.

한편 최 파벨은 1921년 2월에 부대를 이끌고 극동공화국¹⁴ 중앙위원회(Главком) 지시에 따라 연해주 스파스크 지구(Спаский район)에서 아무르주 스보보드느이(자유시, г. Свободный)에 도착했다. 그곳에 극동에서 활동하던 대부분의 한인 빨치산 부대들이 집결을 했다. 최 파벨의 부대



또한 이들 부대들과 더불어 특수 사할린 빨치산부대 (Особо-Сахалинский партизанский отряд, 사할린의용대; ‘니항군대’에서 개칭)로 재편성되었다. 최 파벨은 재조직된 부대의 참모장 직무대리로 임명되었고, 부대가 해체될 때까지 직무대리로 활동을 했다.¹⁵ 그러나 1921년 6월, 최 파벨이 속해있던 부대는 자유시참변(自由市慘變)¹⁶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최 파벨이 속한 부대는 코민테른¹⁷ 동양비서부에 의해 조직된 고려군정의 회 총사령관 갈란다라쉬빌리(부사령관 오하묵)의 무장해제 요구에 불응했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무수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할린의용대는 무장해제가 되었고, 최 파벨을 포함하여 80명의 지휘관들이 불복종 선동죄로 체포되어 이르쿠츠크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어 한동안 옥고를 치렀다. 최 파벨은 1935년에 해군장교 시절에 작성한 ‘자기 소개서’에서 사할린의용대가 소비에트 적군의 지휘와 무장해제에 불응한 이유로 새로운 지휘부의 구성원 중에는 과거 백위파 군대 출신의 장교들도 있었기 때문으로 기록하고 있다.¹⁸ 기록에서 최 파벨이 지적한 무장해제 거부의 근본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당시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인무장독립군 세력의 재편성 과정에서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 간의 군권 주도권 다툼 속에서 찾아 보는 게 더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¹³ 『고려일보』, 1993년 4월 17일, 토요일, 10면. 「Мёртвые и живые」(산자와 죽은 자).

¹⁴ 극동공화국(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Республика, 1920.4.6-1922.11.15, 수도-치타): 일본의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임시로 세워졌던 완충국가.

¹⁵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9, 11а.

¹⁶ 자유시참변은 1921년 6월 27일 러시아 스보보드느이(자유시)에서 독립군 무장세력 간의 군통수권 갈등 속에서 발발한 무장충돌 사건이다.

¹⁷ 코민테른(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3-й Интернационал): 1919-43년 시기에 존재했던 국제적인 공산주의 통합조직.

¹⁸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9.

른 분야에 비해서 특별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아버지(최재형)의 억울하고도 황망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아버지에 대한 소비에트 당국의 의외의 평가에서 자극을 받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즉 1922년 소비에트 건설 이전 시기에 사회활동과 항일운동을 통한 러시아 당국에 대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당국의 아버지 최재형에 대한 이념적 평가는 한편으로는 아들인 최 파벨로 하여금 더욱더 정치적, 이념적 측면에서 확고한 신뢰성있는 이미지를 지니도록 요구받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한편, 이와는 달리 해군군사학교 졸업 이후의 최 파벨의 행적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1926년 10월 5일, 최 파벨은 해군군사학교를 졸업했고, 노농붉은해군(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ий Красный Флот)²²의 간부(지휘관)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어 그는 11월 1일자로 아무르함대 주력함(линейный корабль) <스베르들로프호>의 당직사관(вахтенный командир)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927년 11월부터 1928년 10월 기간 동안 최 파벨은 간부지휘능력향상과정(Курсы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командного состава) 포병분과 교육생 신분으로 간부특별과정을 이수했고, 1928년 11월부터는 카스피함대 포함(канонерская лодка) <레닌호>의 포병분과장에 임명되어 근무했다. 또한 그는 1931년 5월부터는 카스피함대 참모부의 포병중대장직에 임명되었고, 1933년 11월부터는 붉은기발틱함대(КБФ) 주력함 <마라트호>의 포병분과장에 임명되었으며,²³ 이 기간 동안 해군장교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갔다.

최 파벨의 군복무 경력에 대해서는 이하 제시된 최 파벨의 ‘연도별 주요 근무수행경력’²⁴ 사항을 통해서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²² 노농붉은해군(Рабоче-Крестьянский Красный Флот): 1946년 이후 소련방해군(ВМФ)으로 개칭.

²³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9,11а-12. 이전까지 최 파벨(선학)의 이력사항에서는 이 시기(1933.11) 그의 직책명은 (붉은기)발틱함대 주력함 <마라트호>의 ‘선임 포병중대장(старший артиллерист)’으로 나타나고 있다.

²⁴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7,13. 「최 파벨의 노농붉은군대 연도별 근무수행경력」. 최 파벨의 군복무 행적을 최대한 알리는 차원에서 가능한 시기별 활동상황을 그대로 두었음을 밝혀둔다.

[연도별 주요 근무수행경력]

	부대(근무지) 명칭	직위 명칭	등급 /구분	지시 (번호)	
1924.2.8	프룬제 명칭 해군군사학교 등록(입학)	수강생 (생도)		해군군사 학교 №6	
1926.11.1	아무르함대 <스베르들로프호> 임명			579	
1926.11.5	아무르함대 <스베르들로프호> 도착	당직사관		720	
1927.9.1	함대 지휘능력향상과정 (KYKC)에 파견			383-1	
1927.10.1	간부지휘능력향상과정을 위해 군사학교 도착	포병분과 수강생		172-1	
1927.11.26	간부지휘능력향상과정	포병분과 수강생			
1928.10.1	간부지휘능력향상과정 이수			388	
1928.10.2	카스피함대 포함 <레닌호>에 도착			393	
1928.10.13	카스피함대 포함<레닌호>	포병분과장			
1928.10.22	카스피함대 포함<레닌호>	포병분과장		440	
1931.5.19	카스피함대 참모부	포병중대장			
1933.11.10	붉은기발틱함대 주력함 <마라트호>	포병분과장	9 중		
1933.11.28	붉은기발틱함대 주력함 <마라트호>	선임 포병중대장			
항해 경력					
연도	함대명칭	직책	일수(日數)		
			출항이동	정박	근무대기
원	순양함 <오로라호>	함대근무자	4	14	21
본	함포 <붉은기호>	함대근무자	10	9	5
혜	함포 <마라트호>	함대근무자	39	52	32
손	아무르함대 주력함 <스베르들로프호>	당직사관	-	-	-



최 파벨은 복무기간 동안 우수한 장교 자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는 모범적인 군복무 생활과 정치능력, 그리고 함포사격 능력배양의 공로로 여러 차례 상을 받는 등 최초의 한인장교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갔다. 한 예로, 1929 년에 시행되었던 카스피함대 함포사격 대회에서는 그는 금시계를 받았고, 1930 년에도 1 등상으로 리볼버 권총을 부상으로 받기도 했다.²⁵ 최 파벨이 우수한 장교 자원이었음은 1929 년 12 월과 1932 년 11 월에 작성된 최 파벨에 대한 군당국의 이하의 ‘직무수행능력 사정평가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1929 년도에 작성된 사정평가서에서는,

“이것은 사정평가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간주한다. 사정평가 대상자는 행정적인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상 지도(지시) 능력이 있고 엄한(까다로운) 편이다. 최 파벨은 자존심이 강하고 완고함이 있다. 또한 그는 사격과 관련하여 선임들의 지시와 주의에 대해서는 조용히 받아들인다. 개인적인 성격의 결함들은 바른 지도 하에서 쉽게 수정될 수 있고, 향후 훌륭한 포지휘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첫 해 함포사격 지휘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성공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향후에 있을 경험들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수행 중인 직무에 부합되며, 사정평가서를 승인한다.”²⁶

는 내용과 함께 제 6 종 중급간부(지휘관)에 포함시키라는 결정사항이 적혀있다. 1932 년도에 작성된 사정평가서에서도,

“최 파벨 동무는 카스피함대 참모부 포병중대장 의무를 2 년 동안 수행해 오고 있다. 직무수행기간 동안 최 동무는 좋은 함포 근무 조직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또한 자신의 개인적 학습과 다른 지휘관들이나 전문가들과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서 함대의 함포준비능력을 상승시켜 놓았다. 그는 함포 전문가들(동료)들 사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훈련)은 설명과 시범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함대에 함포사격 준비에 따른 계획성있는 절차를 심어놓았고, 모든 포훈련과 포사격에 대한 사전 준비체계를 주입시켜 놓았으며, 이러한 상황들을 전투원 개개인에게까지 숙지시켜 놓았다. 그는 참모부 일꾼(근무자)으로서 의심의

²⁵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9а.

²⁶ РГАВМФ, Ф.2192, Оп.5, Д.4290, Л.12а. 「직무수행능력 사정평가서」.

여지없이 성장하고 있다...(중략). 직책은 부합이 되고 있다. 주력함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은 이후에는 훌륭한 선임 포병중대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²⁷

라고 언급하며, 최 파벨의 군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언급되고 있다.

1923년 말에 해군군사학교에 입학한 이래 최 파벨은 인생 최고의 황금기를 달리고 있었다. 최 파벨은 이 시기를 거치며 공산당원 자격도 부여 받았다. 1927년에 최 파벨은 전소련방공산당(볼셰비키)(ВКП(б))²⁸의 후보당원이 되었고, 1932년 5월에는 카스피함대 당위원회에 의해 전소련방공산당 당원으로 정식 승격되었다.²⁹ 이는 해군함대의 장교로서, 그리고 이념성을 검증받은 공산당원으로서 주류사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최 파벨에게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며 극동의 한인사회에는 점차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스탈린의 광기가 시작되며 사회 곳곳에서 체포와 당(黨) 제명, 처형 등의 회오리가 불기 시작한 것이다.

III. 스탈린 탄압과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의 죽음

1. 기록보존소 자료 속에 나타난 최 파벨의 비극적인 죽음

최 파벨의 절정의 군복무 생활은 바람처럼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 또한 1930년대 초중반을 거치며 점차 스탈린의 광기어린 소수민족 탄압정책의 회오리에 휘말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록보존소 자료들에는 최 파벨의 군복무 기간이 흐를수록 당국의 최 파벨에 대한 입장은 점차 부정적인 측면으로 기울어 갔음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직무수행능력 사정평가서’를 보면 눈에 띄는 평가 기록들이 눈에 띈다.

우선, 1929년도 직무수행능력 사정평가서에는, 주로 긍정적인 평가들 외에, “때로는 우둔한 측면이 있고, 자제력이 적다”³⁰고 기록되어 있으며, 1932년도 사정평가서에서는,

²⁷ РГАВМФ, Ф.2192, Оп.5, Д.4290, Л.14-15. 「1931년 5월 20일부터 카스피함대 참모부 포병중대장직을 수행해 온 최선학에 대한 1932년도 사정평가증명서」.

²⁸ 전소련방공산당(볼셰비키)(Всесоюзна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большевиков)): 1952년 소련방공산당(КПСС)으로 개칭.

²⁹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9a,12.

³⁰ РГАВМФ, Ф.2192, Оп.5, Д.4290, Л.12a.

“부하들을 다스릴 줄을 알고 있으나 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 지휘권 수행에 방해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근무상의 올바른 상호관계를 항상 유지시켜 주고 있지는 못하다. 최(선학) 동무의 의욕은 많으나 감정적인 결함과 과도한 조급함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근무 및 일상적인 측면들이 일그러뜨려지는 경향이 있다...(중략) 최 동무는 카스피함대 근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다른 함대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도 만족스럽게 발달되어 있으나 특별한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최 동무는 퇴폐주의적 기분에 굴하는 성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그에게서는 허용될 수 없는 급한 성격과 때로는 무기력증(권태)이 나타나고 있다. 성격상 최 동무는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자제력을 잃기도 한다.”³¹

는 내용에서 부정적인 강도가 더 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밖에 1933년에 붉은기발틱함대 당위원회에 의해 지나친 음주에 대해 질책을 받은 경우도 있고,³² 1934, 1935년에는 <마라트호>에서도 질책을 받은 경력도 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의 평가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인사평가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질책사유였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후 2년 여 동안을 더 해군 장교로서의 지위와 보직을 유지해 나갔기 때문이다.

최 파벨에게 스탈린 탄압의 불운한 기운이 직접적으로 불어닥치기 시작한 것은 1935년도 봄 무렵부터이다. 최 파벨은 2등대위 계급을 달고 내무인민위원부(НКВД)³³ 소속 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1935년 12월 20일부터 1936년 12월 3일까지 사회적 출신을 속인 혐의로 크론슈타트(Кронштадт, 핀란드만의 군항)에서 심문을 받았다.³⁴ 이어 같은 해에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숨긴 죄, 즉 출신성분을 속였다는 명분으로 붉은기발틱함대 당위원회에 의해 전소련방공산당(볼셰비키) 당원(1932-35) 자격에서 제명이 되었다.³⁵ 스탈린 정권의 억지와 허구가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 파벨의 아버지가 극동지역에서 항일투쟁에 헌신을 했고, 특히 사재를 털어서까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음은 무엇보다 소비에트 당국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³⁶ 자료에 드러난

³¹ Там же, Л.14-15.

³²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2-3а. 「1937년 4월 7일 작성된 최선학의 신상기록부」; там же, 9а,12.

³³ 내무인민위원부(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Внутренних Дел): 인민위원부(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는 현재의 부(министерство)에 해당.

³⁴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2-3а.

³⁵ Там же, Л.6-7а. 「1937년 4월 11일에 작성된 최선학에 대한 사정평가서」, 「최 파벨의 노농붉은군대 연도별 근무수행경력」, 「최선학의 신상기록부」.

³⁶ 최 파벨 아버지(최재형)의 항일 및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생존자의 회상을 통해서 본 스탈린 탄압의 비극: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 최 파벨

기간과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최 파벨은 전체적으로 1935년 12월-1937년 12월 3일 기간에 걸쳐 지리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그는 1936년 12월에는 소련방 혁명군사소비에트(Революционный военный совет) 지시(№225) 674조 ‘e’항에 의거하여 1936년 12월 경에 국방인민위원회(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 обороны) 지시(№01512)로 노농 붉은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해임이 되었다(12월 17일).³⁷ 해임과 더불어 예비 자원으로 분류가 되었으나 최 파벨은 여전히 군부의 목록에는 간부 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 스탈린의 망령이 꿈틀대던 시대에 작은 사상적 결함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불운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의 앞에는 여전히 스탈린의 망령이 저승사자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최 파벨의 해임은 불운의 연속선상에서 한 과정일 뿐이었다. 스탈린 소수민족 탄압의 망령이 횡행하고 닥치는대로 숙청의 칼날을 들이대던 그 시절이 아니었던가! 누구든 표적이 되면 벗어나기 힘든 강력한 미늘이 최 파벨의 몸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그들은 비단 최 파벨 1인에 게만 드리워진 것이 아니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힌바 대로 내전기인 1919년에 서시베리아 전투에서 사망한 큰 형 최 표트르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큰 누나 최 베라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남은 형제자매들, 그리고 어머니의 운명 또한 서서히 스탈린의 서슬퍼런 탄압의 수레바퀴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소비에트 해군당국은 최 파벨의 해임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최 파벨을 군부에서 완전히 제거해 내고자 끊임없이 구실을 만들어 나갔다.

ЛИСТ ПРОТОКОЛА

иски по преемственности командного и начальствующего состава запаса Морфлота, Берговой Обороны и Моравиля, названый приказом Командующего ВМФ № _____ от февраля 1937 г. Основан на учете Василия Ивановича РВК

имени Чой-Монгун Пин Хансин

отца Хансин

Принимая учетные признаки

тафелинградский руина. Водитель. Пар. учета. 8/2

в запасе 1936 года. № ВУС 6. Категория 9

требовать Носимую одежду

Предложено комиссии

ставка _____ Род войск _____ № ВУС _____

РВК: знаменитый в ушах № запаса _____ очередь _____

использования _____

Мотивы предложения

В связи с 1936 г. арестом ВМФ № 1936 по г. 174 п. 1. В форме неизвестной Пин с матерью. Предложенный акт имеет в виду Собака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В.И. Хансин

Члены: В.И. Хансин

11. августа 1937 г. Василий Пин Хансин

2건의 기록보존소 문건-1937년 4월 11일 최 파벨 관련 사정평가위원회 조서록 / ‘예비역 간부 최 파벨 관련 사정평가위원회 결정문-은 최 파벨이 완전히 군부에서 해직되는 순간의 상황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사정평가위원회는 조서록에서, “최 파벨을 간부직에서 완전히 해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제안의 근거로, 사정평가위원회는, 최 파벨은 이미 소련방 혁명군사소비에트(Революционный

페트로비치(최선학) 가족을 중심으로,” 『제외한인연구』, 24호, 201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3а, ба-7; там же, Л.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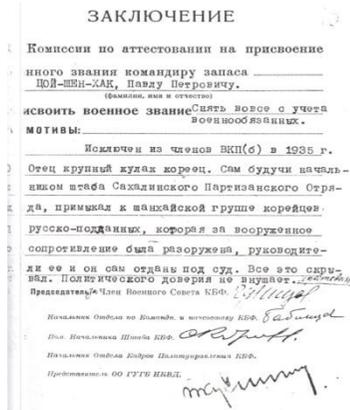
「최 파벨의 노농붉은군대 연도별 근무수행경력」.

³⁷ РГАВМФ, Ф.2192, Оп.2, Д.1696, Л.3а, ба-7; там же, Л.13. 「최 파벨의 노농붉은군대 연도별 근무수행경력」.

военный совет) 지시(№225) 674 조 'e' 항에 의거하여 1936 년 국방인민위원부(НКО) 명령(№01512)으로 해직되었다(12 월 17 일). 최 파벨은 함대에 서 간부로서 활용될 수 없으며, 간부직에서 완전히 해직시켜야 한다”³⁸

고 강하게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지는 사정평가위원회 결정문에서는 최 파벨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선헌(최 파벨 페트로비치)은 1935 년 에 전소련방공산당(볼셰비키) 당원에서 제명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인 대 지주였고, 최선헌 자신은 사할린 빨치산 부대 참모장 직을 수행하면서 러시아국 적의 한인들을 상해파 그룹에 끌어들였다. 사할린 빨치산 부대는 무장저항을 한 죄로 무장해제 되었고, 그 부대의 지휘관들과 최선헌 자신은 재판을 받았다. 그는 이 모든 사실들을 숨겨왔으며, 따라서 그의 행위는 함대 내에서 정치적인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없다.”³⁹

사정평가위원회는 이상의 사유를 제시하며 최 파벨을 병역등록부에서 아예 삭제 시킬 것을 최종결정했다. 최종결정문 서명에는 붉은기발틱함대 내 고위직 간부들(군사소비에트 위원/의장, 간부및지휘관 분과장, 부참모장, 정치관리국 인사분과장)과 내무인민위원부 국가보안중앙관리국 특별분과장이 참여했다. 소비에트 중앙당국과 해군 당국이 한 명의 우수한 자원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합작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를 만들어 낸 것이다. 10여 년 전에 있었던 항일빨치산 투쟁활동과 자유시참변의 연루 경력이 최 파벨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내전기 극동에서 백위파와 일제에 대항한 빨치산 투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자유시참변 당시 무장 세력 간 갈등이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에트 권력 유지에 어떤 장애가 될 수 있었던 말인가! 스탈린과 그 권력자들은 그렇게 허무맹랑한 구실을 내세워 누구든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1937년의 한민족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에 앞선 전주곡에 불과했다.

³⁸ Там же, Л.14. 「1937년 4월 11일 최선헌 관련 사정평가위원회 조서록」.

³⁹ Там же, Л.16. 「최선헌 관련 사정평가위원회 결정」.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1937년 4월 경에 군부에서 완전히 축출된 후 최 파벨은 예비 병력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그는 복직을 포기하지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함대 복직을 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1937년 12월, 최 파벨은 가까스로 알탈해의 국영해운회사(Госпароходство) 항구책임자 보조직에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했다.⁴⁰ 하지만 평은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이듬해인 1938년 6월, 최 파벨은 다시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형법은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형법(УК РСФСР) 58 조 1a 항이었다. 최 파벨은 1938년 10월 17일에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총살을 당했다. 유사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카자흐공화국(КССР) 내무인민위원부의 내부 감옥에는 남동생 최 발렌틴이 수감되어 있었는데, 최 발렌틴은 동료 수감자들로부터 둘째 형인 최 파벨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전해 듣게 되었다.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최 파벨은 심문과정에서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모욕을 참지 못하고 의자로 조사관을 폭행했다. 이후 고문을 받은 후에 크즐오르다로 압송되었고, 10월 17일에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⁴¹ 그의 동생이 최 발렌틴이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심문을 견뎌내고 중국에는 살아서 석방된 것과는 대조적인 안타까운 죽음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37년을 전후로 스탈린의 대숙청 사업은 절정에 달했다. 고려인들의 경우 강제이주 이후에도 곳곳에서 숙청 작업이 진행되었다. 가령 악츠크빈스크 한 지역의 예를 보면, 강제이주 이후 간접이나 국가반역죄 등을 뒤집어 씌워 1938년 여름과 가을에만 115명이 고려인들이 내무인민위원부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최고형인 총살형에 처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체포되어갔으나 이후 돌아오지 못했다.⁴² 이와 유사한 일들은 CIS 전역 곳곳에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탄압 받은 고려인들은 우선적으로 지도급인사들과 지식인들, 소비에트열성당원들, 노동자와 농민들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었다. 지식인 그룹에 있던 고려인들은 그렇게 비운을 맞이했다.

⁴⁰ 이병조, “생존자의 회상을 통해서 본 스탈린 탄압의 비극: 최초의 한인 해군장교, 최 파벨 페트로비치(최선학) 가족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4호, 2011, 162-163쪽.

⁴¹ 위의 논문, 16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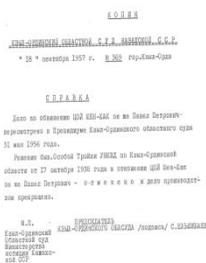
⁴² 『레닌의 기치』, 1990년 12월 29일, 4면. 「잊을수없는 추억」.

2. 명예회복을 위한 살아남은 자의 노력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 대한 규제는 1956년 말에 거의 해제되었다. 195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고려인들이 자의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승인되었다. 이와 나란히 억울한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과 복권을 위한 유가족들의 노력이 진행되어 나갔다. 최 파벨의 남겨진 형제들(정확하게 표현하면 ‘스탈린 시대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란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또한 그랬다. 최 파벨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4남 7녀)과 배우자들 중 많은 사람이 스탈린 탄압으로 죽음을 맞았다. 살아남은 자는 남자 형제 중 최 파벨의 첫째 남동생인 최 발렌틴이 유일하고, 4명의 여자 형제들(최 소피야, 최 올가, 최 류드밀라, 최 엘리자베타)이 체포와 심문에 겨우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 남은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적지 않은 임무가 지워졌다.

1950년대 초 스탈린 사망 이후 최 파벨의 유일한 남자형제 생존자인 최 발렌틴과 생존 여동생들은 비명횡사한 형제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계 기관과 문의 접촉을 했다. 그 결과 남겨진 형제들은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카자흐공화국) 크즐오르다 주법원으로부터 최 파벨을 죽음으로 몰고 간 소비에트 당국의 결정은 파기되었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명서: 최선히(최 파벨 페트로비치) 혐의 사건은 1956년 5월 31일 크즐오르다(г.Кзыл-Орда) 주법원 간부회에서 재심이 되었다. 그 결과 최선히(최 파벨 페트로비치)과 관련한 1938년 10월 17일자 크즐오르다주 전(前)내무인민위원부관리국 산하 특별 3인위원회(Особая тройка УНКВД)의 결정은 파기가 되었으며, 사건은 종결되었다.”⁴³



1990년대 초 소비에트 붕괴 이후 들어 남겨진 최 파벨 형제자매 가족들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이미 고령으로 사망했거나 고령의 부모 세대를 대신해서 최 파벨의 직계 유가족과 최 파벨의 조카들이 중심이 되어 탄압받은 부모와 그 형제들의 사인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뛰어 다녔다. 1992년 2월 20일에 최 파벨의 아들 네온과 조카 최 발렌틴⁴⁴ 최 파벨이 총살을 당한 도시인 크즐오르다(г. Кзыл-

⁴³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크즐오르다 주법원에서 발급한 최 파벨 페트로비치의 명예회복증명서, 1957년 9월 18일/№369.

⁴⁴ 최 파벨의 유일한 생존 남동생 최 발렌틴의 아들인데, 본인의 아버지 최 발렌틴과 동명이다.

Орда) 주법원에 최 파벨의 죽음과 관련하여 청원서를 제출했고, 당일 3월 6 일에 크즐오르다주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 (Управление Комите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에 접수가 되었다.⁴⁵ 이후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은 답변을 통해 최 네온과 최 파벨 앞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보해 왔다.



“최선학(파벨 페트로비치)은 1900년 11월 25일에 연해주 포시예트 지구(Посьетский район, 현재 하산 지구)의 안치헤(с.Янчихе, 연추)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체포 이전에 아랄스코예 모레(г.Аральское море)에서 거주했으며, (해직 이후에) 국영해운회사(Госпароходство) 항구책임자 보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구성하고 있었고, 가족으로는 아내(한 타티아나 안드레예브나;

Хан Татьяна Андреевна), 딸(타야; Тая, 4세), 아들(네온; Неон, 당시 3개월)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가족은 모스크바(주소: 모스크바, 호홀로프스키 골목, d.13, kb.307)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최선학은 1938년 6월 13일에 체포가 되었는데, 그는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형법 58-1 'a'항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1938년 10월 17일, 크즐오르다주 내무인민위원부관리국 산하 특별 3인위원회(Особая тройка УНКВД)에 의해 법정최고형인 총살형을 선고받았고, 1938년 10월 26일에 크즐오르다에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⁴⁶

최 파벨의 죽음에 대한 정황 외에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의 답변서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유감스럽게도 기록보존소에는 당시 탄압 희생자들의 매장지에 관한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해서 귀하의 부친의 매장지(위치)에 대해 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청원서에 근거해서 판단해 볼 때, 이전에 귀하께서 부친의 죽음에 대해 받은 정보들은 왜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2일에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은

⁴⁵ 크즐오르다주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 부책임자 기텐코(А.Гитенко)가 최 파벨 페트로비치와 관련 최 네온 파블로비치에게 보낸 1992.3.11일자 답변서(№624).

⁴⁶ 위와 같음.

호적등록소(Запись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아랄분과로 귀하 부친의 실제적인 죽음의 원인과 시간과 관련해서 사망기록부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통보를 보냈습니다. 아울러 부친의 새로운 사망증명서를 최 네온 파블로비치 앞으로 발송해 달라는 부탁을 호적등록소에 통보해 두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은 재심을 위해 최선학(파벨 페트로비치) 관련한 기록보존소 자료들을 크즐오르다주 검사국에 보냈으며, 검사국을 통해 부친의 명예회복 증명서가 귀하에게 송달이 될 것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귀하 부친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부친의 불의의 죽음과 관련하여 진심어린 위로를 표하는 바입니다.”⁴⁷

최 파벨의 죽음 이후 약 80년의 시간이 지났다. 역사는 언제나 후대에 의해 회자되고 평가 속에 그 위치를 자리잡아 간다. 최 파벨은 스탈린 체제의 비인도주의적이고 반인륜적인 정치 테러에 의한 한 명의 희생자일 뿐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고, 이는 비단 민족을 구분하지 않았다. 크즐오르다주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은 답변서에서 공권력에 의한 정치적 만행에 대해 국가적 입장에서 유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고인의 명예를 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주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겠으나 스탈린의 광기와 탄압으로 입은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후손들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 파벨 집안의 유일한 남자 생존자였던 남동생 최 발렌틴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스탈린 시대의 잔인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살아왔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통스럽게 가족의 비극사와 시대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전한 바 있다.

“기억으로부터 벗어나다는 것은 저에게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던 시대였습니다. 저의 식구들 중에서 단지 여자 형제들인 올랴(Оля), 리자(Лиза), 밀라(Мила), 소냐(Соня), 그리고 저만 탄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저 또한 체포되어 콘베이어 방식으로 심문을 당했습니다. 즉 9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21시부터 아침 7시까지 끊임없이 심문을 가했습니다. 18 시에서 21 시 사이에는 잠자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심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항상 감시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것도, 조국에 대한 어떠한 배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깨지고 늘어지고 말았습니다....아마도 무죄에 대한 저의 확고한 믿음이

⁴⁷ 위와 같음.

저를 구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비에트 형법 58 조 1 항에 따라 당시 저는 총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⁴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자의 정신적 트라우마(trauma, 정신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동생 최 발렌틴은 평생을 스탈린 시대의 망령에서 온전히 벗어나 살아 오지를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최 파벨의 후손이나 생존 형제들과 함께 관계기관을 접촉하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족들의 복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스탈린 탄압으로 비명횡사한 무수한 고려인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은 사실상 해빙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진행되었다. 실례로 1989년 1월 5일자 <1930-40년대 및 1950년대초 탄압희생자들의 복권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1989년 1월 16일자 소련방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악추빈스크주 검사국은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과 협동으로 4,210명에 대한 3,419건의 형사사건을 재심의 했고, 이중 95%의 고려인들이 명예회복이 되었다.⁴⁹ 고려인들의 명예회복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 더 확고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V. 맺음말

이상으로 러시아국립해군기록보존소에 소장되어 있는 최 파벨 관련 원자료들을 중심으로 최 파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정황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스탈린 정권의 광기어린 반인륜적, 비인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우선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소비에트 초기 최초의 한인장교의 군복무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미활용 자료가 이용 및 소개되었다는데 있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 졌던 가족사수기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미시사적인 연구가 아닌 소비에트 정권 차원에서 생산된 이러한 미활용 자료를 통해 위로부터의 역사보기를 통해 선행연구와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균형맞추기식 역사보기를 통해 최 파벨이라는 인물의 군복무활동 동선을 추적해 보았고, 이를 통해 그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단편-피즐을 맞추어 보았다.

제 2장에서 드러난 최 파벨의 빨치산 활동의 경우 최 파벨 본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내용이 소개가 되었다. 그런 만큼 선행연구에

⁴⁸ 『고려일보』, 1993년 4월 17일, 토요일, 10면. 「Мёртвые и живые」(산자와 죽은 자).

⁴⁹ 『레닌의 기치』, 1990년 12월 29일, 4면. 「잊을수없는 추억」.

서 활용된, 형제들이 중심이 되어 작성된 가족사수기에 기반한 활동들과 비교해서 좀 더 상세하고,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더 정확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최 파벨은 ‘자유시참변’의 충돌원인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최 파벨이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여 얼마나 사상적 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생활해 나갔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제 3 장에서는 러시아국립해군기록보존소의 자료들을 통해 선행연구 가족사수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최 파벨의 군복무활동 행적이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 졌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대로 해군 당국은 최 파벨에 대해서 이른 시기부터 두 가지의 시선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단순한 인사근무평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의 썩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1930 년대 들어 체포와 숙청의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스탈린 추종자들에게 최 파벨은 한 마리의 순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정평가서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 중의 하나가 최 파벨의 ‘급한 성격’에 대한 언급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일찍이 최 파벨이 의협심과 정의심이 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급한 성격의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음이 언급된 바 있다. 이는 최 파벨의 생존 남동생 최 발렌틴의 경우와 대비되는 측면이기도 했다. 최 발렌틴은 소비에트 당국의 모진 심문에도 극도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최종적으로 석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 파벨의 여동생 최 올가는 그런 최 발렌틴을 두고, “남동생 최 발렌틴이 삶에 불평을 하는 적이 결코 없었고, 본인의 황금같은 성격, 즉 놀랍도록 차분하고 강한 인내심 덕분에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다”⁵⁰고 회고했다. 최 발렌틴은 최 파벨이 심문과정에서 조사관을 폭행했고,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죽음을 더 가속화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비친 적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식구들의 안타까운 마음일 뿐 최 파벨 숙청의 근본원인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자신의 측근조차도 중국에는 신뢰하지 않았던 스탈린의 광기가 이미 소련 전역을 휘돌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에 더 원인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 파벨의 죽음은 명백한 탄압의 결과물이며 살인이다. 최 파벨이라는 지식인 1인의 탄압 사례를 통해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황당하고도 허망하게 비명횡사를 겪었는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고 하겠다.

한편, 1993 년 4 월 1 일에 러시아연방 최고회의에 의해 불법적으로 탄압당한 고려인들의 역사적 공정성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한 「러시아 고려인 명예회복에 관한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결정」이 최종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인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특별한 명예회복 및 복권문서(증명서)를 교부받는 데에는 많은 절차상의 어려움이 뒤따랐다. 강제이주문서들이 훼손되어 있거나

⁵⁰ 이병조, 위의 글, 152 쪽.

탄압당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 가해짐에 따라 당국의 행정처리에 많은 비난이 야기되기도 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또다시 동분서주해야 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했다. 그럼에도 1993년 4월 1일에 승인된 「러시아 고려인의 명예회복에 관한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결정」은 러시아연방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고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 결정은 러시아연방 전체 민족들에 대한 명예와 정의를 회복시키고, 소수민족들의 민족문화를 부흥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며, 또 다른 삶을 형태를 열어주는 기폭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록보존소 자료들을 통해 최 파벨의 군복무활동을 살펴본 것은 매우 흥미있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최 파벨에 대한 연구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필요성이 있으며, 차후에도 최 파벨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더 발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에도 최 파벨을 포함한 4남 7년의 가장이자 극동지역 항일운동의 대부였던 최재형 선생과 본 논문의 주인공인 최 파벨, 그리고 탄압받은 그 형제들과 배우자들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최 파벨 집안의 모든 분들에게 본 논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1 차자료)

러시아국립해군기록보존소(РГАВМФ, Россий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Воен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1. ф.2192, оп.5, д.4290, л.3,3а,4,4а. 「최 파벨 군무 및 신상기록부」.
2. ф.2192, оп.5, д.4290, л.5. 「1926년도 해군군사학교 최 파벨 직무 예비지식 평가서」.
3. ф.2192, оп.5, д.4290, л.12а. 「최 파벨의 직무수행능력 사정평가서」.
4. ф.2192, оп.5, д.4290, л.14-15. 「1931년 5월 20일부터 카스피함대 참모부 포병중대장직을 수행해 온 최선휘에 대한 1932년도 사정평가증명서」.
5. ф.2192, оп.2, д.1696, л.2,2а,3,3а. 「1937년 4월 7일 작성된 최선휘의 신상기록부」.
6. ф.2192, оп.2, д.1696, л.6,6а. 1937년 4월 11일에 작성된 최선휘에 대한 사정평가서,
7. ф.2192, оп.2, д.1696, л.7. 최 파벨의 노농붉은군대 연도별 군무수행경력,
8. ф.2192, оп.2, д.1696, л.7а. 최선휘의 신상기록부
9. ф.2192, оп.2, д.1696, л.8,8а,9,9а. 「1935년 3월 5일자 작성된 붉은기발틱함대 주력함 <마라트호> 포병분과장 최선휘의 자기소개서」.
10. ф.2192, оп.2, д.1696, л.11,11а,12. 「1937년 4월 10일자 레닌그라드에서 작성한 최선휘의 자기소개서」.
11. ф.2192, оп.2, д.1696, л.13. 최 파벨의 노농붉은군대 연도별 군무수행경력

12. ф.2192, оп.2, д.1696, л.13а. 최 파벨의 신상기록부
13. ф.2192, оп.2, д.1696, л.14. 1937년 4월 11일 최선헌 관련 사정평가위원회 조서록
14. ф.2192, оп.2, д.1696, л.16. 최선헌 관련 사정평가위원회 결정

최재형 가족사수기: 서신, 회상수기, 전기, 연표

1.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 [Что помню и узнал об отце], 1990-94.
2.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 [Кратко о себе и о нашей семье], 1990.6, г.Алма-Ата.
3.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 [Хронология жизни Цой Петра Семёновича-Зя Хена, 1860-1920], 1992.3.
4. Цой Валентин Петрович, ЦойЕлизавета Петровна, [Краткая биография Цой Петра Семёновича-Зя Хена], 1990.2, Алма-Ата.
5. Цой Ольга Петровна, [Моя жизнь], 1990.1.10, г.Москва.
6. Цой София Петровна, ЦойОльга Петровна, [Биография Цой Шен Хак-Павел Петровича], 1961.5.
7. 최 포트르 세묘노비치(재형) 후손계보도, [Генеалогия потомков ЦойП.С.], 1990년 12월 작성.
8. 최 올라 페트로브나가 엘리자베타 야코블레브나에게 보낸 편지, 「Милая Елизавета Яковлевна!」.
9. 크즐오르다주 국가안보위원회관리국 부책임자 기텐코(А.Гитенко)가 최 파벨 페트로비치와 관련 최 네온 파블로비치에게 보낸 1992.3.11일자 답변서 (№624).

기타 자료

1. 『고려일보』, 1993년 4월 17일, 토요일, 10-11면. 「Мёртвые и живые」.
2. 『레닌의 기치』, 1990년 12월 29일, 4면. 「잊을수없는 추억」.

(2차자료)

1. Бутенин Н.А., Бутенина Н.Д.(2006), “Участие корейцев 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е в России,” 『역사문화연구』, 제 2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 Губельман М.И.(1956), 『Лазо』,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Москва.
3. _____(1958), 『Борьба за Совет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1918-1922』,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Москва.
4. Ильюхов Н.К., Самусенко И.(1962), 『Партизанское движение в Приморье』, Во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СССР, Москва.
5. Ким Сын Хва(1965),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ука, Алма-Ата.
6. Пак Б.Д.(1967),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борьба народа накануне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аука, Москва.
7. Петров А.И.(2006), “Юг Приморья в период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России: 1918-1922 гг.,” 『역사문화연구』, 제 2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8. Фадеев А.(1961), 『Повесть нашей юности. Из писем и воспоминаний』, Госиздательство д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Москва.
9. Цой Брони(под ред.)(2003), 『Энциклопедия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140 лет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10. Цой В.В.(2000), 『ЧХВЕ ДЖЭХЁН-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Алматы.
11. Цой В.В.(2001), 『ЧХВЕ ДЖЭХЁН-Цой Пётр Семёнович』, (дополненное) Алматы.
12. 김 블라디미르 저, 김현택 옮김(2000), 『러시아 한인 강제 이주사』 (문서로 본 반세기 후의 진실), 경당.(김 블라디미르의 단행본 “Правда: полвека спустя, Ташкент, 1999”의 번역본).
13. 김 블라디미르, 조영환 역(박환 편해제)(1997), 『재소한인의 항일투쟁과 수난사』 (강제이주 60주년에 되돌아본), 국학자료원.
14. 강만길(1999), □회상의 열차를 타고□, 한길사.
15. 국가보훈처(2001), 『국의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 2000-2001 년도』.
16. 부가이 지음, 최정운 번역, 류한배 감수(1996), 『재소 한인들의 수난사』 (해설 및 관계 공문서), 세종연구소.
17. 박보리스(2004), 부가이 니콜라이 지음(김광한, 이백용 옮김), 『러시아에서의 140년간』, 시대정신.
18. 박환(2003),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만주와 시베리아의 무장독립운동가들』, 국학자료원.
19. _____(2008), 『시베리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최재형』, 역사공간.
20. 윤병석(1993), “러시아 연해주(沿海州)에서 한국민족운동(韓國民族運動)의 동향(動向),”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7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1. 이병조, “생존자의 회상을 통해서 본 스탈린 탄압의 비극: 최초의 한인 해군 장교, 최 파벨 페트로비치(최선학) 가족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4호, 2011.
22. 이정은(1996), “최재형(崔才亨)의 생애(生涯)와 독립운동(獨立運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10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3. _____(1997), “3.1운동을 전후한 연해주 한인사회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11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4. 이상일(2002), “1937년 연해주 한인의 강제이주 배경과 일본의 對蘇 정보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19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5. 잡지 「고려사람」, 1993년 6-7호. 스탈린 지도부의 한인탄압을 받은 인물들의 명단과 죄목, “충살명부” 등등
26. <https://search.i815.or.kr/Degae/DegaeView.jsp?nid=1746>(2011.4.14 일 검색/ 『1920년대 전반 만주·러시아지역 항일무장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시리즈).